

“의회 운영 내실화... 협치·상생 정치 펼치겠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의원 역량 강화로 의정 실효성 제고
인구소멸 대응 TF 구성해 정책 발굴
국립의대 갈등 해소 공론화 장 마련
소수정당·여성 의견 정책 반영 노력
“도민 눈높이 맞춘 의정활동에 주력”

“도민 눈높이에 맞춰 도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태균(광양3) 의원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을 구현하겠다”며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가감 없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요 현안에 과감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정 슬로건으로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내세웠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적절한 인사 교류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장에게 후반기 의회 운영 계획과 의정 포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의장으로 도의회를 이끌게 됐는데 소감은.

△민고 지지해준 동료 의원님들과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적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도의장의 중책을 수행하겠습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는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의 역량 강화로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균 의장은

△1963년 광양 출생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제10대 전남도의회 의원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제1부의장 △코로나19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생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의회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인력이 확충됐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후반기에는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상임위원회를 의원활동 보좌에 역점을 두는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보좌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더불어 전남도와의 적절한 인사교류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힘쓰겠다. 현재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90.9%인 20곳이 소멸위험 지역이다. 급속한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적자원의 붕괴 현상도 매우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의회-전남도-전남도교육청 간 정책 TF를 공식 구성하고 현실성 높은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책 의회로의 내실화에도 집중하겠다. 타 광역의회나 기관 방문, 선진지 견학 등 의원들의 국내 현지 활동과 대외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특위와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장려해 공부하는 의회, 정책 개발에 매진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놓고 전남 동부와 서부권 의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한 유치 경쟁이 전남 동서지역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12대 의회 후반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갖겠다. 또한 의견을 취합해 의회에서 나온 안을 집행부에 제시함으로써 지역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최적의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 집행부 또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소수정당 및 여성 의원들과의 동행 방안이 있다면.

△12대 후반기는 각종 의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의견 공유로 소수정당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균형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의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다. 성별과 당색, 지역의 구분을 뛰어넘는 도민 본위의 의정으로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펼쳐가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평소 믿음과 신뢰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는 한결같은 소신을 갖고 살아왔다. 12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소신을 지켜나갈 것이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12대 전남도의회에 많은 응원 바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1조4천억 규모’ 여수 LNG터미널 내달 ‘첫 삽’

SPC·채권단 협상 타결... 2027년말 완공

여수 묘도에 민자 1조4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이 9월에 첫 삽을 뜬다.

특수목적법인(SPC)과 대주단(채권단) 간 협상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던 금리 문제 등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추진

특수목적법인(SPC)인 ㈜동북아엘에너지허브터미널이 전남 대주단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동북아엘에너지허브터미널은 ㈜한양이 60%, GS에너지가 4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상 타결로 착공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9월10일께 경제부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7년말 완공을 목표로 여수시 묘도 일원 27만4000여㎡(8만3000여 평) 부지에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고, 이후 20년(2028~2047년) 간 광양만권 산단에 LNG를 연 300만톤씩 공급하는 대규모 순수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LNG 터미널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고용 유발 효과 1만3000여 명, 생산유발 효과 2조8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터미널이 운영되는 20년 간 지방세,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지역에 재투자되는 직접 비용도 연평균 242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LNG 저온설비를 활용한 냉동물류, 바이오의약품, 초전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3000억원, LNG를 수송할 조선산업 활성화로 65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LNG 터미널 사업 성공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조건이라고 보고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펀드에 최종 선정되면 28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고, 투자 리스크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지현 기자

